



◇우리는행 불자회원들이 아이들을 안고 미소를 짓고 있다.

◇'눈맞춤' 현동관(사진 왼쪽) 부회장이 태호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행불자회 상락원 봉사현장

"태호, 시원하지."
"으응."
17일 서울 안암동 장애아동복지시설 상락원. 현동관 씨(47)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태호(4)를 씻겨주고 있다. 목욕을 안 하겠다고 떼쓰던 태호를 달래고 목욕시키는

목욕·간식준비·청소·빨래 등

떡먹기'다. 80여명의 정신지체 아동의 옷을 벗기는 것부터 비누질, 탈기 닦아주기, 빨래에 이르기까지 손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씻고 나면 아이들이 개운해 합니다.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배워갑니다."
신창호(44) 불자가 이곳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가 이렇게 말했다. 다른 불자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자원봉사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그냥 일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바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행 불자회의 봉사활동은 지난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 소적사마을 봉사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매년 분기별 파주 노인요양원 인신선원 방문 등 꾸준한 소외된 이웃과 만나고 있다.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다 도와주고 손을 맞잡습니다. 잘해 주면 좋아하고, 잘 못해주면 싫은 표정을 짓는 그야말로 천진불이지요. 정신 지체 아이든, 치매 어르신이든 말입니다. 이들에게서 마음 두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니까요."

이탁수(49)씨가 말하는 '수행법'이다. 자원봉사할 때의 마음가짐이 사심 없이 진정한 불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행 불자회 정진호 회장은 "날마다 일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직장인이다 보니 사실 퇴근 후나 주말엔 모든 게 귀찮고 잠자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봉사활동에서 부처님 법을 깨닫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뒷바라지 힘은 들지만 되레 감사하는 마음이...

'천진불'과 어울리며 큰 공부

숨씨가 능숙하다. 단단히 꼰이 났던 세련이(5·정신지체 2급)도 현씨가 씻기고 난 뒤 급세 웃음을 짓는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상락원에는 고마운 손님들이 온다. 우리는행 불자회(회장 정진호) 회원들이 바로 그들. 자원봉사를 원하는 은행 불자직원 20여명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찾았다. 자주는 못 왔지만 아이들과 이미 친해졌다.
하지만 목욕만큼은 언제나 한바탕 '전쟁'이 치러진다. 울부짖다 못해 방바닥에 머리를 짚는 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이. 되레 간식준비, 청소는 '누워서



우리불자회는요

경희의료원 불자회

불자님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불자회입니다.

아침, 우리 불자회를 처음 들어 보신 불자님들도 있겠군요. 다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희의료원 불자회는 서울 시내 유일한 사립대학교 병원 불자직원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7년 7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몸소 실천하고자 불자직원 21명이 모여 첫발을 올린 직장불자회입니다.

초창기 때는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사실 불교가 좋아 못했었지만, 신생활이 계속 될수록 풀리지 않는 불교에 대한 의문 덩어리만 키워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조계종 연화사 주지 대안 스님은 우리 불자회원이 품고 있던 의문들을 조목조목 풀어 주셨습니다. 또 공생선원 무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회원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자랑을 또 해야겠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환자들을 위해 대한불자가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3-4회의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하신 불자 가수님으로, 김철선 대한불자가수회장님, 남궁수 명예회장님, 현진우 사무국장님 등을 비롯해 명국환, 금사향, 송준희, 전원주, 현당선생님 등 많은 분들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음악회의 출연해 주신 모든 대한불자가수회 가수분들과 항상 준비해 주시는 총무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해외 성지순례(인도) 등을 계획해 회원들의 단합을 이루고 부처님의 말씀

직장 특성 살려 무의촌 순회진료 6년째

무료진료단 구성 올기를 도리사서 봉사



◇경희의료원 불자들이 울릉도 고창선운사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님은 참선을 지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법회는 시작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불자회원들은 연화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회원만 100여명이 넘는 직장인행단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뭐니 해도 직장 특성을 살린 무의촌 무료진료봉사 활동입니다. 올해로 벌써 6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불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병원 내 안내센터 및 인공신장실 등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어, 병원 교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자원봉사만 한

을 환자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무료 순회진료 봉사 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우선 올 가을부터 독자적으로 부속병원 내과와 안과, 한방병원,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포함한 무료진료단을 구성, 경북 구미 도리사로 떠날 계획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회진료봉사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불제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을 반성하고,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인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은 회장

정근·참선 등 매달 주제별 법회 교육도 세분화, 호응 좋아 '눈길'

경분회

'친불가, 정근, 참회, 사경, 참선... 불교 공부하는 재미가 솔솔 난다.'

최근 직장불자회가 틀에 박힌 법회 형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법회방식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자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주제별 법회를 매달 여는 불자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단제는 경찰청 불교회(회장 박재진). 이 불자회는 올해 초부터 친불가, 참회법, 사경 등 불교 수행법을 한 달 단위로 나눠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 또 교육일정도 일주

일 별로 '스님 초청 특강-실습-평가(회향)'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7월 '참회법회'의 경우, 첫 주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 초청 '참선 특강', 두세 째 주는 <금강경> 복독 및

참선 실수, 마지막 주는 참선 공부 회향법회 등을 진행해 교육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

경찰청 불자회가 이처럼 매달 주제별 법회를 열고 있는 이유는 회원들의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위해서다. 이 같은 법회방식

은 회원들이 직접적인 불교공부 방식을 벗어나 불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하면 회원들의 법회 참석도 이끌어내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 박재진 회장은 "불교 주제별 법회가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는 데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제 법회 프로그램을 '법회 지침서'로 묶어 신입회원의 불교인문과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지흥 스님 초청 합동법회

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사진)와 국세청보리회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지 지흥 스님 초청, 합동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춘천 보광사에서 정기법회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사진)는 21일 춘천 보광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제행스님에게 '직장불자의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19일 감사서 산사체행행사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광무영·사진)는 19-20일 이틀간 공주 감사사에서 새벽예불, 108배 등의 '산사체행' 행사를 가졌다.



구룡사 자연학습원서 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사진)는 8월 9-11일 나흘간 강원도 치악산 구룡사 자연학습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6대 회장에 조흥인 불자 취임

한국언론기자불자연합회(회장 조흥인·사진)는 12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6대 조흥인 연합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불자회 활성화 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장재관·사진)는 14일 분청 경승실에서 경찰청 불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게미년 백중맞이 무비 큰스님 법화경 7일 대산림

"자비의 방에 인욕의 감옥을 입고 앉아 공의 이치를 밝힌다."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서 49일 영가천도 기도회향에 맞춰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큰스님을 모시고 7일 간 법화경 대산림을 갖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둥근 달이 제일 밝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천만 가지 경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부처님 스스로 '경(經) 중의 왕(王)'이라 이르신 대승경전의 요체, 법화경 산림을 백중이 즈음하여 갖는 것은 이 공덕을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고향을 위하여 회향함으로써 진정한 천도를 장엄함이고, 이산림 법회를 시작으로 매 칠마다 경전 산림을 봉행하여 법련사가 기도와 포교, 수행의 전당이요 불자님들의 귀의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환희 동참하시어 법화경 공덕을 입고, 이 공덕이 영가들에게 회향되어 안락이 두루 평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1. 기 간 : 2003년 8월 6일(수) ~ 12일(화) 7일간
2. 시 간 : 오전 11시 ~ 12시 30분
3. 장 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4. 법 사 :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큰스님
5. 동참금 : 5만원(교재 법련사내 불일서점 비치)
6. 문 의 : 종무소 02)733-5322

산림 동참자에게는 무비 큰스님의 <慈室忍衣> 휘호를 나누어 드립니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기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